

선어록 해제 38 한국선과 선어록 9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8>

佛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약산 노사를 보았을 때 노사가 말했다. “나(我)를 찾는 자가 있으면 입을 봉해 버릴 뿐이다.” 라고. 노승 또한 말하리라. “그 입 다물라!” “나(我)를 취하는 것이 더러움이고, ‘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청정이다. 마치 사냥개처럼 그 저 물건을 잡아 쥐고는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불법(佛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천 명이고 만 명이고 모두 부처를 구하려는 패거리들 일뿐 단 하나의 도인은 찾을 수 없구나. 만일 공왕(空王)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음 병[心病]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장 치료가 어렵다.

아직 세계가 없을 때 이 성품은 있었다. 세계가 무너져도 이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다. 한번 나를 상견한 후부터 그대들은 다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만 한낱 ‘주인공’이다. 이것을 다시 어찌 밖을 향하여 구할 것인가. 그러한 즉 머리를 돌리고 얼굴을 바꾸지 마라. 즉시 잃어버리느니라.

老僧見藥山和高道 有人問著 但教合取 老僧亦道 合取狗口 取我是垢 不取我是淨 一似獵狗相似 專欲得物喫 佛法向什麼處著 一千人萬人盡是覓佛漢子 覓一箇道人無 若與空王爲弟子 莫教心病最難醫 未有世界早有此性 世界壞時此性不壞 從一見老僧後 更不認別人 只是箇主人公 者箇更向外覓作麼 與麼時莫轉頭換面 失卻也

약산 노사는 “나(我)를 찾는 자가 있으면 입을 봉해 버릴 뿐이다”라고 말했고, 조주 스님도 무엇이 나인가 묻는 자에게 “그 입 다물라!”하면서 “나(我)를 찾는 자를 호되고 나무랐다. 나는

없다. 무아(無我)이다. 어디에 나가 있는가.

빈 허공 중에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은 불을 만들고 불은 원소를 만들어 대지를 만든다. 대지가 있으면 수분을 흡수하여 물을 저장하니, 이렇게 해서 공 가운데서 풍화지수(風火地水) 사대(四大)가 생겨났다. 사대는 다시 몸을 만들고 몸은 마음을 만들었으니, 비어있음에서 허망하게 일어난 것이 몸과 마음이다. 마음은 다시 각종 이념과 뜻과 허깨비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니 주인공이라 하여도 임시로 이름 붙인 것일 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주만물이 빈 가운데 허망하게 일어난 것인데

밖에서 부처 구하지 말고 스스로 부처임을 바로 알아

무엇인들 진실한 것이며 영원한 것인가. 거기에 무슨 ‘나’가 있고 ‘너’가 있겠는가. 모두 허망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만 있을 뿐이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을 일으킨다. 만약 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 마음은 원래 깨끗하다는 것을 즉시 알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없는 것을 알면 청정이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다.

각종 시기·질투·미움·욕심·분노·분별·집착·아만 등은 모두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심병(心病)이다. 이 병에 걸리면 치료되지 어렵다. 이 병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공왕(空王·부처님)의 후손답게 고요함으로 나아가라. 오직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하라. 마음이 만약, 대자연이 고요히 침묵하는 것과 같이 고요하다면 일체 구하는 마음이 끊어질 것이다.

부처와 불법은 내 속에 있다.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불법을 구하면 미래가 끝나기도 절대 참 부처와 참 불법을 만나지 못한다.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듣는 이놈이 우주의 주인공이요, 부처인데 다시 어디에서 또 찾을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부처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스스로 부처인 줄 알고 바로 불도를 실천하는 도인은 매우 드물다 했으니 이 말을 깊이 되새겨보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부처가 다시 부처를 찾는 것과 같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과 같으며, 손에 떡을 쥐고 떡을 것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참 성품[本性]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무너지고 세계가 멸망해도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독자들은 적어도 옛 진인(眞人)들의 말을 믿는다면 지금 이후로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우주의 주인공이요, 위대한 부처이지 다른 것이 아닌 줄 즉시 알고 바로 부처의 행을 행하라. 역대 조사가 입을 닦도록 이것을 말했지만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적어서 깨달은 사람이 적은 것이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자와 다르게 말한 경론은 모두 불초(佛初)의 뜻과 다른 것이니, 달리 달콤한 어떤 유혹에 끌려져 자신의 참 모습을 바꾸지 말라. 그러한 즉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무불선원 선원장**

운상민의 서화산책 6 대행 선사 범어



집착 없으면 그대로 부처

온갖 참으로 있음 아니요 참마음 오직 홀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참마음으로 실체가 없어서 인연 따라 온갖 것 지어내나니 지어낸 모든 것에 집착 없으면 부처님 그대로 현전 하리라

* 한글은 판본체(한글고체)이고 한자는 고예(古隸)인 고구려 광개토태왕비 글씨체이다. 이 작품은 국한 혼용작품으로 작가가 2003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한국서예 청년작가 1988-2003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다.

- 實: 열매 실
- 體: 몸 체
- 因: 인할 인
- 緣: 인연 연
- 執: 잡을 집
- 着: 붙을 착
- 現: 나타날 현
- 前: 앞 전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조동종의 기본 교의 답아

조동오위(曹洞五位)는 조동종파에서 만들어지고 전승된 오위(五位)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조동오위는 조동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의(敎義) 가운데 하나로서 수행인이 닦아가는 수행의 위상을 정(正)과 편(偏)을 가지고 다섯 측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달리 정편오위(正偏五位) 혹은 편정오위(偏正五位)라고도 한다.

이 편정오위의 내용은 현상과 본체, 그리고 현상과 본체의 자기와의 관계 등이 상징적으로 서술돼 있다. 따라서 이 오위의 상징적인 뜻을 이용해 수행자들의 안목으로 삼으려는 것이 동산의 <오위현결> 1편이었다. <오위현결>은 214자(字)의 단편이지만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제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후에 오위연구의 성행은 대단히 활발했다. 심지어 임제종파에서까지도 유행했다.

동산을 이은 조산본적(曹山本寂)은 <오위군신지결(五位君臣旨訣)> 1편·<오상계(五相偈)> 5수·<정편오위지결(正偏五位旨訣)> 1편·<해석동산오위현결(解釋洞山五位顯訣)> 1편·<축위승병별간(逐位頌并別揀)> 1편 등을 저술해 동산대사의 오위에 관한 주석을 대성시켰다. 이후 송대에는 안국(安國)의 <오위보협론(五位寶篋論)> 1편·명대 말기에는 영각원현(永覺元賢)의 <동상고철(洞上古轍)> 2권 등이 저술돼 오위사상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겸중도(兼中鈔)를 중심으로 하는 주장과 정중래(正中來)를 중심으로 하는 주장의 논의 등이 제기되는 등 오위의 전승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에 명대의 영각원현은 <동상고철>을 저술해 종래의 오위에 관한 평(評)과 소(劄)의 오류를 바탕으로 그 올바른 뜻을 천명하기 위해 노력한 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한편 오위에 관한 저술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회연선사(晦然禪師, 一然: 1206-1289)의 <중편조동오위> 3권 이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연의 <중편조동오위>는 당시까지 유행하던 조동종의 오위사상을 집대성한 것이다.

회연이 <중편조동오위>를 편찬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서문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는 동산양개 시대에 큰 흐름을 이루던 가르침이 많은 세월이 흘러 자못 어지러워지고 그 가르침이 끊인 위기에 처해 사람들이 미혹하니 진실로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까닭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는 처음 조산본적이 갖가지로 주석을 붙이고, 그의 제자인 조산해하(曹山慧霞)가 그것을 편집했으며, 다시 그 제자인 광휘(光輝)가 다시 그것에 해석을 가하여 세상에 유통시켰다. 그러나 그 말이 난삽하고 험하지 않아서 보법선사(普法禪師) 노겸(老謙)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송본을 얻어 중간(重刊)하고, 다시 거기에서 조동의 유문(遺文)과 소산(蘇山)·말산(末山)의 어결(語訣)을

함해 하편(下篇)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오류가 많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조계의 소용화상(小融和尚)을 만나서 뜻이 같음을 알고 이에 그 오류를 바로 잡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시 회연은 다시 노겸본을 검열해 거기에 배열상의 변경을 가하고 생각할 것은 생략하면서 새로이 후세의 오위설을 가미하게 됐다. 이와 같이 <중편조동오위>는 노겸과 회연의 손에 의해서 거의 그 편제가 완성됐다. 이 가운데 회연이 주장하고자 했던 점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그 하나는 오위의 각 명칭 가운데 정중래(正中來)의 주장인 제4위의 명칭이 편중지(偏中至)인 경우에 대한 회연의 입장이다. 또 하나는 <축위승(逐位頌)>의 작자문제로서 동산양개의 작이라는 것과 조산본적의 작이라는 것에 대한 회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연은 <축위승>의 작자를 조산본적으로 확립하고, 오위의 제4위의 용어를 편중지로 확정했다. 회연이 <중편조동오위>를 통해서 두 가지의 입장을 주장해 조동오위 본래의 입장에 충실했다는 점이야말로 오위사상의 전승에 공헌한 점이다. 회연이 편찬한 <중편조동오위> 3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연, <중편조동오위서> (1260년) 해하, <중집동산편정오위조산간언어서> 광휘, <동산오위현결정조산간출어요서> (권상) 해하 간 광휘 서, 회연 보, <동산오위현결> (부욕자) (권중) 광지정각, <천동사차승> 조산본적·해하백미, <선조산본적선사축위승병주별간> 분양선소, <분양오위답문봉승> 자명초원, <자명화상승> 부용도해, <대양해오위답문> 도오원지, <도오진오위답문> 척지, <척지선사오위승> 광지정각, <천동각오위승> 대해종고, <묘희시중> 월진, <월진장로간오위> 안국화상·서은자연, <오위보협론> (권하) 보법노겸, <동산삼구 부백장삼구> 동산양개, <보경삼대현의> 분양선소, <분양광지가> 심문분, <심문분조동종과승> 한한거사 조강문, <한한거사 조동종> 조산본적, <조산삼종타·사종이류>

회연, <중편조동오위서> (1260년) 해하, <중집동산편정오위조산간언어서> 광휘, <동산오위현결정조산간출어요서> (권상) 해하 간 광휘 서, 회연 보, <동산오위현결> (부욕자) (권중) 광지정각, <천동사차승> 조산본적·해하백미, <선조산본적선사축위승병주별간> 분양선소, <분양오위답문봉승> 자명초원, <자명화상승> 부용도해, <대양해오위답문> 도오원지, <도오진오위답문> 척지, <척지선사오위승> 광지정각, <천동각오위승> 대해종고, <묘희시중> 월진, <월진장로간오위> 안국화상·서은자연, <오위보협론> (권하) 보법노겸, <동산삼구 부백장삼구> 동산양개, <보경삼대현의> 분양선소, <분양광지가> 심문분, <심문분조동종과승> 한한거사 조강문, <한한거사 조동종> 조산본적, <조산삼종타·사종이류>

회연, <중편조동오위서> (1260년) 해하, <중집동산편정오위조산간언어서> 광휘, <동산오위현결정조산간출어요서> (권상) 해하 간 광휘 서, 회연 보, <동산오위현결> (부욕자) (권중) 광지정각, <천동사차승> 조산본적·해하백미, <선조산본적선사축위승병주별간> 분양선소, <분양오위답문봉승> 자명초원, <자명화상승> 부용도해, <대양해오위답문> 도오원지, <도오진오위답문> 척지, <척지선사오위승> 광지정각, <천동각오위승> 대해종고, <묘희시중> 월진, <월진장로간오위> 안국화상·서은자연, <오위보협론> (권하) 보법노겸, <동산삼구 부백장삼구> 동산양개, <보경삼대현의> 분양선소, <분양광지가> 심문분, <심문분조동종과승> 한한거사 조강문, <한한거사 조동종> 조산본적, <조산삼종타·사종이류>

회연, <중편조동오위서> (1260년) 해하, <중집동산편정오위조산간언어서> 광휘, <동산오위현결정조산간출어요서> (권상) 해하 간 광휘 서, 회연 보, <동산오위현결> (부욕자) (권중) 광지정각, <천동사차승> 조산본적·해하백미, <선조산본적선사축위승병주별간> 분양선소, <분양오위답문봉승> 자명초원, <자명화상승> 부용도해, <대양해오위답문> 도오원지, <도오진오위답문> 척지, <척지선사오위승> 광지정각, <천동각오위승> 대해종고, <묘희시중> 월진, <월진장로간오위> 안국화상·서은자연, <오위보협론> (권하) 보법노겸, <동산삼구 부백장삼구> 동산양개, <보경삼대현의> 분양선소, <분양광지가> 심문분, <심문분조동종과승> 한한거사 조강문, <한한거사 조동종> 조산본적, <조산삼종타·사종이류>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화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 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7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7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4월 14일까지
 ◆개강일시 : 2011년 4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